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만드는 마을 라디오



별이 빛나는 고양 FM

나지막한 목소리와 귀에 익은 노래 선율, 젊었을 적 누구나 한 번쯤은 라디오 DJ를 꿈꿔왔을 터.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고양 FM>은 청년에게는 색다른 경험과 삶의 지혜를, 어르신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맘껏 들려줄 수 있는 멋진 프로그램이다.

글/사진 편집부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과 어르신의 소통과 교감

'지역의 청년과 어르신이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문화공동체 '더불어꿈' 서재남 대표. 전체 기획을 맡은 그녀는 고양시 원도시에 사는 분 중에서 문화예술에서 소외된 이, 특히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모색해왔다. 이를 발판으로 기획된 한국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청년&어르신 협력프로젝트' 마을공동체라디오 <별이 빛나는 고양 FM(이하 별빛고양 FM)>이 탄생했다.

별빛고양 FM은 문화예술에 소외된 어르신들과 지역 청년의 활동을 통해 소통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본격적인 기지개를 컨 이후 9개월간의 따뜻한 여정을 시작했다.

별빛고양 FM의 첫 번째 과정은 미디어 교육이었다. '더불어꿈'이 원당 행복학습관과 덕양구청에서 현장교육을 진행했고, 협동조합 청청 마

음미디어 견학 등 총 24회에 걸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공동체 라디오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역 특강을 열며 마을 미디어 활동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세대 공감 마을 라디오 별빛고양 FM이 한발 한발 제 모습을 찾아갔다.

별빛고양 FM은 사람을 향하는 방송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고양문화원 강당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공개방송이 있었다. 별빛고양 FM은 그동안 배운 실력을 SNS에 날 것으로 방송했다. 시 한편을 선정해 시도 읽고 음악도 들어보는 <시와 음악 사이>, 고양 어르신이 어렸을 적 살았던 지역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따.이.따(고양 따라 이야기 따라)>, 세대 간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코너 <베리굿타임>, 80세 이상 어르신만 게스트로 나온 추억 공감 <오늘도 좋은날> 등 한 편당 15~20분 정도의 라디오 방송이 방청객들에게 훈훈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별빛고양 FM 총괄진행을 맡은 하재환 국장은 "세대 간의 공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가진 재미있고 따뜻한 이야기를 '마을 라디오'를 점점 삼아 청년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와 음악 사이> 진행자인 이철훈 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후 딱히 맘 둘 곳이 없었는데, 별빛고양 FM을 통해 평

소 좋아하던 시와 음악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매우 즐거웠다"는 소감과 함께, 라디오를 듣고 멀리 사는 옛 제자가 축하 연락을 줘서 더욱 감격스러웠다고 전했다.

별빛고양 FM은 2018년 시즌1에 이어 올해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시즌2를 준비 중이다. 서재남 대표는 별빛고양 FM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다."고 한다. 23세 청년과 84세 어르신이 세대를 넘어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는 라디오 방송.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사람이지만 않을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송, 별빛고양 FM이 가고 싶은 길이다.

www.facebook.com/별이-빛나는-고양-FM-329424774567461

라디오 듣기 팟티(<https://m.podty.me>) →
'고양 FM' 검색

더 알아보기

“ 23세 청년과 84세 어르신이 세대를 넘어 살아온 이야기를 주고받는 라디오 방송.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도 결국은 사람이지만 않을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송, 별빛고양 FM이 가고 싶은 길이다. ”

1 지난해 11월 고양문화원 강당에서 열린 '공개방송'
2 지역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기획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